

# “신생팀 패기 앞세워 신바람 배구 보여주겠다”

10월 19일 데뷔전 앞둔 광주 연고 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 김형실 감독

### 신인 드래프트 90% 성과...스마트·스피드·스트롱 3S 갖춘 팀 만들 것 광주 시민들 애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광주시청 팀 창단 땀 적극 지원

여자프로배구 제7구단으로 나선 페퍼저축은행의 김형실(70) 감독에게 요즘 ‘시간이 천금’과 같다. 최근 신인 드래프트에서 7명을 선발한 기쁨도 잠시, 오는 10월19일 첫 게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불과 한 달 만에 데뷔전을 치를 베스트 멤버를 꾸리고 시즌을 준비해야 촉박한 일정이다.

사실 페퍼저축은행 팀은 젊은 선수들이 기본기와 체력 등이 약하고 에이스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생팀이다.

하지만, 김 감독은 10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기본기에 충실하고 조직력이 좋은 배구를 해보고 싶다”면서 “스마트(Smart), 스피드(Speed), 스트롱(Strong) 3박자를 갖춘 팀으로 만들겠다”고 비전을 설명했다.

김 감독은 지난 7일해야 시즌준비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2022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총 7명을 지명, 팀 구성이 본격화돼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지명으로 박사랑(대구여고·세터), 박은서(일신여상·레프트), 서채원(대구여고·센터), 김세인(선명여고·레프트), 문슬기(수원시청·리베로)를 뽑았다.

“드래프트에서 100%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90%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해요. 중장기적으로 보

고 잠재성 있고 유망한 선수들로 구성했지요. 신생팀답게 패기를 앞세워 젊고 신바람나는 배구를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장 좋은 집보다는 탄탄한 집을 지어야 창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이 사상누각이 되지 않도록 2-3년 중장기 계획을 세운만큼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김 감독은 1982년부터 1984년 LA올림픽까지 여자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았다. 1991년 청소년 여자대표팀 감독과 여자대표팀 코치를 지냈다. 1997-1998, 2005년에는 여자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다. 지도자로 화려한 경력을 쌓은 그는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을 스마트(Smart), 스피드(Speed), 스트롱(Strong) 3박자를 갖춘 팀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감독 경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으로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 책무를 느끼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성적과 기술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차근차근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고 조직력이 좋은 배구를 해보고 싶어요. 안정적이고 전통성 있는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는 2015-2017년에는 한국배구연맹(KOVO) 경기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2006년 대한배구협회 전무이사를 맡아 행정가로 활동했다. 배구계 지도자, 행정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그는 광주시청 배구팀 창단에 앞장설 계획이다. 누구보

다도 배구팀 육성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이다.

“광주시배구협회 전갑수 회장과 만남에서 창단 얘기가 거론됐지요. 연고지 협약식 때 이용섭 광주시장,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가 계신 자리에서 광주시청팀과 유소년팀 창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매월 사비 100만원을 보태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제 광주시배구협회에서 창단을 준비 중이고, 창단예산서도 받았어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창단이 본격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시청팀이 창단되면 인적·기술적 교류를 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오는 30일 공식 창단식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김 감독은 배구 코트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다. 2011년 여자국가대표팀을 맡아 2012년 런던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획득 했으며, 런던 올림픽에서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36년 만에 두 번째로 4강까지 이끌었다. KT&G 사령탑 시절 V리그 원년(2005년 리그) 우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페퍼저축은행의 창단 첫해 성적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말했다.

“선수들에게 1승만 해도 좋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구단에 계획서를 낼 때는 5승을 목표로 잡았어요.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배구를 통해 광주시민들로부터 많은 열정과 애정을 받고 싶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하루 빨리 정상에 도전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코칭스텝은 물론 선수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창단됐지만 전통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형실 감독



여자탁구 신유빈이 9일 강원 인제 다목적경기장에서 열린 2021 춘계 회장기 실업대회 나흘째 기업부 여자 개인단식 8강전에서 전지희와 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지희-신유빈 실업 첫 맞대결...관록의 승리

### 전지희, 회장기 대회 3-1 승

‘여자탁구 에이스’ 전지희(29·포스코에너지)가 ‘차세대 에이스’ 신유빈(17·대한항공)과의 실업 첫 맞대결에서 승리했다.

전지희는 9일 강원 인제 다목적경기장에서 열린 2021 춘계 회장기 실업대회 나흘째 기업부 여자 개인단식 8강전에서 신유빈에게 3-1(11-3 11-6 2-11 15-13)로 이겼다.

전지희는 김별님(포스코에너지)-양하은(포스코에너지) 경기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룬다.

국내 최강자로 꼽히는 전지희는 이로써 신유빈과 공식전 전적에서 2전 전승으로 앞서나갔다.

전지희는 지난 3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스타 컨테너 개인 단식 8강에서 신유빈을 3-1로 제압한 바 있다.

2020 도쿄올림픽 단체전에서 복식조를 꾸렸던 전지희와 신유빈은 ‘적’으로 맞은 두 번째 맞대결을 뒤로하고 다시 동지가 된다.

전지희와 신유빈은 대표팀에서 복식조를 꾸려

이달 아시아선수권대회와 11월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선다.

경험이 많은 전지희가 초반 기세를 올렸다.

전지희는 1세트 먼저 실점한 뒤 내리 7점을 따내 승기를 잡았고, 결국 11-3으로 세트를 마무리했다.

2세트에서도 전지희의 노련미가 신유빈의 패기를 앞섰다. 전지희의 구질에 적응한 듯한 신유빈이 추격의 고삐를 풀 때마다 전지희가 노련하게 흐름을 끊었다.

3세트 승부의 흐름이 바뀌었다. 신유빈이 과감한 공격으로 전지희를 흔들었다. 신유빈은 4-1에서 내리 6점을 따내는 기력으로 전지희를 압박한 끝에 11-2로 완승했다.

4세트는 박빙 양상으로 흘렀다. 신유빈이 힘을 앞세운 드라이브로 따라붙으면 전지희가 반 박자 빠른 되치기를 앞세워 한 걸음 달아났다.

4차례 듀스 끝에 웃은 건 전지희였다. 신유빈이 두 차례 연속으로 리시브 실수를 범하면서 전지희의 승리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 당구 방송인 ‘해커’ PBA 두번째 도전장



당구 방송인 ‘해커’(사진)가 프로당구 무대에도 한 번 출전한다.

프로당구협회(PBA)는 9일 “당구 인플루언서 ‘해커’가 오는 15일부터 경기도 고양에서 열리는 TS삼푸 PBA-LPBA 챔피언십에 스폰서 와일드카드를 참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 방송을 운영 중인 해커는 당구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당구 인플루언서’다.

제야의 고수로 통하는 해커는 가면과 모자를 쓴 채 경기하는 게 특징이다.

해커의 PBA투어 참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올 시즌 개막전인 블루원리조트 PBA 챔피언십에도 스폰서 와일드카드를 출전한 바 있다.

해커는 128강에서 베트남의 강호 마민캄(신한금융투자)을 상대로 분전했으나 0-2로 패배, 첫판서 탈락했다. 당시 해커는 “TV로만 보던 PBA 무대에 직접 서보니, 웅장한 느낌을 받았고 가슴이 벅차올랐다”며 “긴장과 설렘을 안고 경기에 나섰다. 데 프로의 벽은 역시나 높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차 투어 출전을 앞둔 해커는 “와일드카드로 초청해준 PBA와 후원사 측에 감사드린다.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경기하겠다”고 말했다.

TS삼푸 PBA-LPBA 챔피언십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열린다. /연합뉴스

## 반갑다 농구야

### KBL 컵대회 11일 개막...정규리그 앞두고 10개 팀 출전 전력 확인

2021 MG 새마을금고 KBL 컵대회가 11일 경북 상주체육관에서 개막, 18일까지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는 10월 9일 2021-2022시즌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각 팀의 전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5월 초 안양 KGC인삼공사의 우승으로 2020-2021시즌이 끝난 뒤 4개월 만에 열리는 프로농구 경기로 팬들의 ‘농구 갈증’도 해소해줄 것으로 기

대된다.

다만 프로 10개 팀 가운데 서울 삼성은 선수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이번 대회에 나오지 못한다.

프로 9개 구단과 상무까지 10개 팀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위가 4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한다.

외국인 선수들도 출전할 수 있지만 외국인 선수 영입 및 입국이 늦어진 일부 팀들은 이번 대회를

국내 선수들만 치르는 경우도 있다.

A조에 전주 KCC와 창원 LG, 서울 SK가 편성됐고 B조에 인삼공사와 수원 kt, 고양 오리온이 들어갔다.

C조는 상무와 한국가스공사, 원주 DB가 경쟁하며 D조는 울산 현대모비스와 삼성으로 짜였는데 삼성이 불참하면서 현대모비스는 자동으로 4강에 올라갔다.

인전 전자랜드를 인수한 한국가스공사가 첫선을 보이고, 부산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연고지를 옮긴 kt도 새 동지인 수원에서 치르는 경기는 아니지만 연고지 이전 후 처음으로 공식 경기에 나선다.

전희철 선임 사령탑이 지휘봉을 잡은 SK가 어떤 팀 컬러를 보여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요 이적생들의 활약도 관련 포인트다.

2020-2021시즌 인삼공사를 정상에 올려놓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LG로 이적한 가드 이재도(포스코에너지)를 비롯해 두경민(DB-한국가스공사), 허일영(오리온-SK), 김동욱(삼성-kt), 전준범(현대모비스-KCC) 등이 새 유니폼을 입고 팬들 앞에 등장한다.

현대모비스에서 지난해 은퇴한 양동근은 코치로 벤치를 지킨다.

첫날인 11일에는 오후 2시 KCC와 LG가 첫 경기를 치르고 오후 4시 상무와 한국가스공사 경기가 이어진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열리고, 우승팀과 준우승팀에는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싱크홀
- 2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인질
- 3관 인질, 싱크홀
- 4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 5관 모가디슈
- 6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 9관 건파우더 밀크셰이크, 코다, 죽을 때까지
- 7관 씨네커풀 모가디슈, 싱크홀, 슈퍼문
- 8관 씨네커풀 인질, 좋은 사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서사무엘 UNITY**  
일시 : 2021. 09. 14.(화)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11시 음악산책 6  
**김가온의 Thanksgiving Day**  
일시 : 2021. 09. 24.(금)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